



미 증시, 금리 상승 여파로 차별화 장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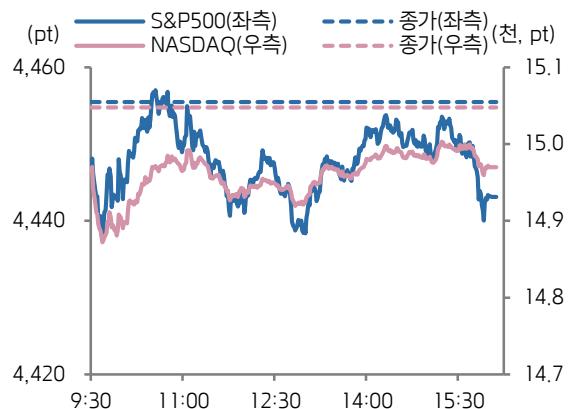
27 일 (월) 미국 증시는 미국 장기물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 장 초반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가 1.5%를 상회하면서 나스닥은 1.2%까지 하락. 하지만 장중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자 성장주 주가들은 낙폭을 축소. 한편 경기민감주들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장중 강세를 유지(S&P500 +0.28%, 나스닥 -0.52%, 다우 +0.21%)

금일 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은 1)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2)미국 내구매주문 지표 호조였음. 유가 상승세 지속(WTI +1.9%)과 중국 화력 발전 제한 규제로 인한 전력 부족 현상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 중국은 2022년 2 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제한. 개장전 미국 8 월 내구매주문이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MoM +1.8% vs 전월 +0.7%)하면서 금리와 달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가 2022~2023년 브랜트유 전망을 81~85 달러로 레인지로 기준 65~78 달러에서 큰 폭 상향 한점도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 골드만은 전망 조정은 1)예상보다 큰 OPEC 감산량과 2)미국 세일 정유업체들의 가동 BEP 때문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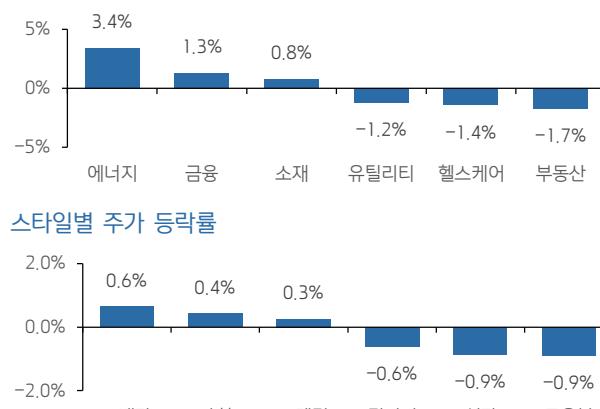
한편 연준의 카플란(댈러스)과 로젠클린(보스턴) 연은 총재 조기 사임 소식이 있었음.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자신의 주식 거래 논란을 인정하며 "연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10 월 8 일 조기 사임 공식 발표. 로젠클린 총재은 건강 문제로 사임 계획을 약 9 개월 앞당김(2022년 6 월 임기). 올해 하반기 매파적인 발언들이 잣았던 카플란 총재에 대한 소식으로 차기 총재가 더 비둘기파적일 기대가 커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특징주

애플(-1.1%): 중국 전력 부족 현상으로 중국 공장 셧다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 테슬라(+2.2%)도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덜 받음. 중국 정부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길게는 4일 공장들을 가동하라고 명령.

아마존(-0.6%): 모건스탠리는 향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목표가 4,300 달러에서 4,100 달러으로 하향 조정. 모건스탠리는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인건비가 약 6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옥시덴탈(+7.4%), 마라톤 오일(+6.3%), 할리버튼(+5.4%), 다이아몬드백(+7.6%) 등 에너지주: 국제 유가 상승(WTI +1.9%)으로 동반 강세

JP 모건(+2.4%), BOA(+2.7%), 모건스탠리(+2.1%) 등 금융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지속(+2bp, +1.48%)

베스트바이(+5.2%): 파이퍼 샌들러는 베스트바이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최근 5년 가장 기대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목표가를 146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 24일 종가 기준으로 43% 업사이드 제시.

카니발(+3.6%): 현금흐름이 흑자 전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흑자 상태 유지를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주가 상승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4,443.11	-0.28%	USD/KRW	1,176.55	-0.01%
NASDAQ	14,969.97	-0.52%	달러 지수	93.41	+0.08%
다우	34,869.37	+0.21%	EUR/USD	1.17	+0.03%
VIX	18.76	+5.69%	USD/CNH	6.46	+0.01%
러셀 2000	2,281.00	+1.46%	USD/JPY	110.99	-0.01%
필라. 반도체	3,445.44	-0.2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473.72	+0.91%	국고채 3년	1.562	-1.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72	+1.5bp
Eurostoxx50	4,165.48	+0.17%	미국 국채 2년	0.278	+0.8bp
MSCI 전세계 지수	730.46	-0.15%	미국 국채 10년	1.487	+3.6bp
MSCI DM 지수	3,103.53	-0.0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65.10	-0.58%	WTI	75.45	+1.99%
MSCI 한국 ETF	83.00	+0.59%	금	1752	+0.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8.1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위드코로나 관련 경제 정상화 업종들의 주가 변화
2.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 강세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종들의 긍정적인 주가흐름 가능성
3. 최근 주가 급등세가 있었던 친환경 성장주들의 차익실현률 출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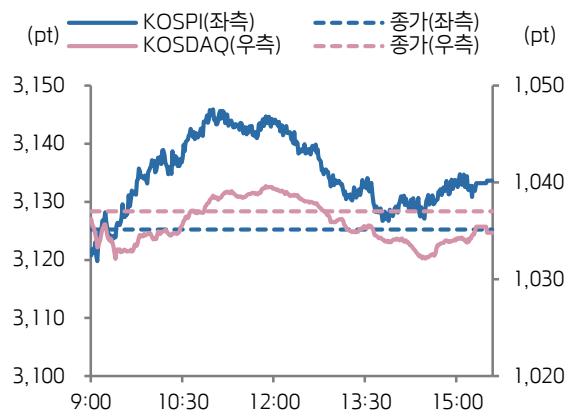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장중 10 년물 금리가 1.5%대를 상회하며 6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 월 FOMC 이후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된 상황.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연말까지의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급등 압력 등이 금리에 반영된 영향이 있겠으나, 경제 정상화 기대감도 재차 부각되고 있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자수(7 일 일평균 기준)가 2 주전대비 약 18% 감소한 가운데, 8 월 내구재주문(+1.8%MoM, 예상 +0.6%)도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충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 전거래일 연설이 있었던 뉴욕 연은 총재, 시카고 연은 총재, 브레이너드 이사 등 주요 연준 위원들도 미국 경기 전망을 기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역사적으로 금리와 주식시장은 (+)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27 일 미국 기술주들은 이를 빌미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은 증시의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프라투자 표결,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 부채한도 협상 등이 치러질 30 일(목) 미국의 정치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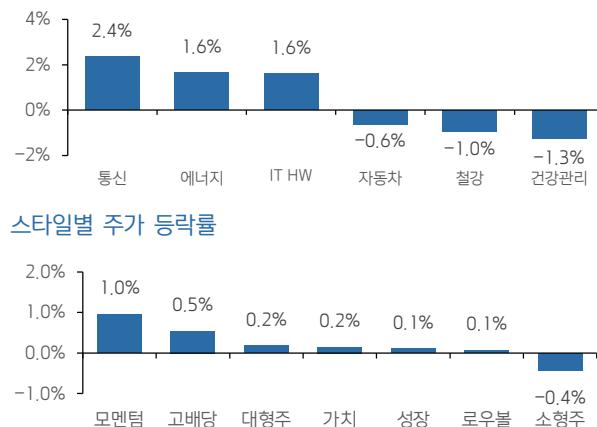
이상의 요인들을 감안 시, 한국 증시도 미국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 정상화 관련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동안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뛰어났던 일부 친환경 성장주들은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반면, 위드코로나 기대감, 전거래일 미국 마이크론(+1.5%)의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서 기인한 주가 강세 등을 고려하면 경제 정상화, 반도체 업종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물론 최근 들어 코스피의 상단이 제한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반도체 등 실적 개선 대형주 순매수,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 등을 감안 시 장기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